

# 영암군,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 확정…세계적 명소로

380억원 투입 2029년 완공 목표  
AI 교육원·국제 대국실·기념관 등  
맞춤형 훈련 체계 구축 인재 육성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국수의 고향인 영암군이 세계적인 바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 사업을 포함한 총 5개 핵심 현안, 1천339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  
건립이 확정된 국제 바둑연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으로 군은 국·도비 25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80억원 규모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둑 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우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영암군은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연차적인 국·도비 지원을 받아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세계적 수준을 갖춘 바둑 복합 연구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수원은 단순한 교육 시설을 넘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내부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바둑교육원과 국제대국실, 인재교육관, 바둑기념관 등 최첨단 스포츠 인프라가 들어선다.  
또 AI 분석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훈련 시설, 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 등 맞춤형 훈련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바둑 인재를 육성하고, 전 세계 프로 기사들이 찾는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키워겠다는 구상이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서의 기능도 강화했다.1

00설 규모의 숙박 시설과 다목적 경기장 등을 함께 조성해 국내의 대규모 바둑 대회와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성과는 영암군의 끈질긴 세일즈 행정의 빛이낸 결실로, 군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득해왔다.  
군은 영암이 조훈현 국수의 고향이자 매년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이 열리는 바둑의 본고장이라는 정통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월출산 국

립공원, 영산강, 왕인박사유적지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바둑 관광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이번 국제 바둑연수원 국·도비 확보는 영암이 한국 바둑의 분향을 넘어 세계 바둑의 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교육, 체류,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플랫폼을 완성해 영암을 전 세계 바둑인들이 가장 찾고 싶은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전국 최고 휴양지 입증

해수부 주관 ‘우수 해수욕장’ 선정  
2017·2020년 이어 세 번째 쾌거  
2차 최초 블루플래그 8년 연속 획득

‘친환경 해변’의 대명사인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사진)이 다시 한번 전국 최고의 휴양지임을 입증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5년 우수 해수욕장’ 평가에서 최종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7년과 2020년에 이은 세 번째 선정으로 해수부는 매년 시설·운영 관리, 테마 운영, 이용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상위 3곳을 선정한다.  
신지 명사십리는 4km에 달하는 은빛 백사장과 울창한 해송림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특히 ‘공기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음 이온이 도심보다 50배 이상 풍부해 치유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완도군은 이용객의 안전과 편



영도 돌보였다. 인근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 맨발 걷기, 해변 필라테스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치발리볼, 크로스핏 대회 등을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밖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교육재단(FEE)으로부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블루 플래그(Blue Flag)’ 국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자 아시아 최초로 8년 연속 획득하며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완도군은 앞으로 신지 명사십리를 해양치유산업의 거점이자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해변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해수욕장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의를 최우선으로 삼은 운영 관리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백사장과 야영장에 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해 청결을 유지하고, 수질 검사 확대와 식품 위생 업소 점검 등 철저한 방역 및 위생 관리로 호평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물놀이만을 넘어선 다채로운 콘텐츠 운

## 무안군의회, 남악 활성화·미래 신성장 동력 ‘집중’

김봉성·김원중 의원, 군정질문  
김산 군수 “소비진작·정주 개선”  
‘무안공항 중심 산업도시’ 조성도

무안군의회 정례회에서 침체된 남악지구의 제도약 방안과 무안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이 구체화됐다.  
9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30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김산 무안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질의에 나선 김봉성, 김원중 의원은 각각 남악 신도시 활성화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로드맵을 점검했다.

먼저 김봉성 의원은 인구 정체와 상가 공실로 활력을 잃어가는 남악지구의 현주소를 짚으며 종합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이에 김 군수는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놔다. 우선 공목형 상점이 지정과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 확대 협의를 통해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며 ▲오룡 공영차고지 조성·순환버스 노선 확대 ▲남악IC 확장공사 준공 ▲축산IC 신설 등을 통해 남악을 친환경·스마트·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신도시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 네트워크 구축, 남악복합주민센터 공연장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어 김원중 의원은 지방소멸과 산업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무안군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 생존 전략을 집중 질의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RE100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과 ‘무안국제공항 중심 자족형 산업도시’ 조성을 공식화했다.  
기업 수요가 입증된 국가산단을 서남권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공항과 연계해 산업·교육·의료·문화가 결합된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주민 참여형 소득 모델인 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안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계획을 소개했다.  
이번 정례회는 김봉성·김원중 의원의 질의를 통해 남악 재도약과 RE100 국가산단 등 무안군의 미래 전략과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자리로, 군이 제시한 청사진이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



지난 8일 조도면 ‘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열린 안전지원제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첫 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 “진도 상조도-옥도 잇는다” 연도교 공사 첫 삽

길이 1.8km…주민 이동권 개선  
진도군은 9일 “전날 조도면에서 ‘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의 무사고와 성공적인 추진을 염원하는 안전 지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군의회의

장 및 의원, 지역 사회 단체장, 주민, 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은 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111억원이 투입되며, 상조도와 옥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140m와 접속 도로 1천740m를 포함해 총연장 1.88km 규모로 건설된다.

오는 2028년 말 교량이 준공되면 배로만 오갈 수 있었던 옥도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낙후된 섬 지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수 군수는 “이번 연도교 건설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대한 사업이자 지역 발전을 이룰 미래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민들이 제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홍보하기 급급…목포시장 후보들 비전 無”

정태관 문화연대 대표 SNS서 비판  
부정적 도시 이미지 쇄신 등 촉구도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예비 주자들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목포문화연대에 따르면 정태관 공동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목포시장 출마 예정자들에게 공개 질의를 던지며 정책 비전 부재와 단일한 선거 운동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후보들이 ‘왜 시장에 출마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SNS 홍보용 사진 찍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목포의 추락한 도시 이미지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후보

자들에게 해법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순혜원 투기 의혹, 시내버스 운행 중단, 잇단 시장직 상실, 칸제비비아호 좌초 등 악재가 겹치며 목포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도시 이미지 악화는 경제·관광 전반에 타격을 준다. 이를 극복하고 명품 도시로 전환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박용률 전 시장의 낙마 이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며 발생한 행정 공백과 재정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산 확보 경쟁에서 밀려 교부세 300억원 페널티와 188억원의 세수 결손 등 목포시가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소신 있는 재정 타개책을 지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관 공동대표는 “시민들의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후보자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비전과 해법을 내놓는지 지속적으로 묻고 따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 영광군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현판식

옛날떡집·카페그리 등 11곳

영광군은 “최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신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할인 가맹점 11곳을 방문해 ‘제5차 현판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새롭게 동참한 업체는 ▲옛날떡집 ▲카페그리 ▲카페마실 ▲청차다방 ▲미가람스터디카페 ▲마트넷할인마트 ▲더리터 ▲호그족발 ▲백련식당 ▲우동숯불갈비 ▲봄nby나영 등 11곳으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은 총 34곳으로 늘었다.  
해당 가맹점들은 최근 2년간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업체별로 5~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인 보상을



지원하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 문화에 기여해 동참해 준 가맹점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함평엑스포공원 ‘빛의 우주정원’ 재탄생

자연생태관 새 단장 관람객 손짓

함평군이 국향대전의 뜨거운 열기를 겨울까지 이어가기 위해 함평엑스포공원 자연생태관을 환상의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사진>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자연생태관을 ‘빛의 우주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겨울철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몰입 경험을 선사한다.  
앞서 자연생태관은 올해 대한민국 국향대전 주제인 ‘마법의 국향랜드’에 맞춰 토성 조형물과 12개의 혜성, 가을 들꽃 등을 활용한 ‘마법의 우주정원’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군은 이에 힘입어 기존 토성과 혜성 조형물에 은은한 조명을 입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빛의 우주정원’을 완성했다.  
관람 동선을 따라 빛으로 물든 나무와 꽃들 사이에는 작은 별처럼 총총한 조명이 반짝이며, 천장에 반사되는 불빛은 마치 은하수를 걷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여기에 잔잔하게 흐르는 배경음악이 더해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특히 전시관 중앙 폭포에서는 물줄기를 타고 흐르는 빛과 함께 강렬한 레이저 쇼가 펼쳐진다. 레이저는 은은한 조명과 대비를 이루며 마치 비행처럼 퍼지는 빛의 제적을 연출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단순한 조명 전시를 넘어 빛과 음악, 동선이 하나의 이야기로 흐르는 몰입형 체험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가족, 연인 등 모든 방문객이 일상을 벗어나 신비로운 별빛 정원을 거니는 듯한 겨울밤의 감동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